

# 與는 이재명·野는 남경필 ‘집중 추궁’

〈성남시장·새정치〉

〈경기지사·새누리〉

## 안행위 ‘환풍구 추락’ 원인·대책 점검

### 정무위 유병언 채무 탕감 특혜 비판

국회는 22일 안전행정부·정무위·농해수위 등 6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열어 최근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와 사망한 유병언 전 회장의 채무 탕감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는 안행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남경필 경기지사과 이재명 성남시장을 상대로 환풍구의 사공·감리·준공검사의 문제점과 사고 수습 과정에서 경기도와 성남시가 빚은 혼선과 책임 회피, 성남시와 이태일리 간 행사의 주체 논란 등을 상세히 따져 물었다.

다만 남 지사가 새누리당 소속, 이 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라는 점 때문인지 새누리당은 주로 이 시장을, 새정치연합은 남 지사를 강하게 물었다.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사고 후 남 지사가 결핵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매우 좋은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성남시장은 책임지는 자세 없이

변명으로 발뺌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이 혼자 웃음을 짓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민이 보고 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이 사과를 거부하고 “기가 막혀 웃었다. 질문하면 답변할 기회를 주어야 않느냐”고 반격하면서 감사장 공문을 보냈는데 도지사가 이걸 모르고 있었다”고 추궁했다. 이에 남 지사는 “명의는 도지사라 되어 있으나 실제 분당소방서로 간 것이다”고 해명했다.

정무위의 예금보험공사와 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예보의 채무 탕감 문제가 논란이 됐다.

유 전 회장이 2010년 예보로부터 채무 147억원 가운데 140억원을 탕감 받았는데, 예보가 차명·은닉

재산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이를 탕감한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예보가 별도의 재산이 발견되면 감면 내용을 무효로 하고 채무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각서만 달랑 한 장만 받고, 숨긴 재산을 조사하지 않은 채 140억원 넘게 탕감해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 아니냐”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은 “채무탕감 당시 유 회장과 직계 존비속 등 재산자 명의로 숨긴 재산을 조사조차 안 한 것은 명백한 부실조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주현 예보 사장은 “그 당시 미진한 재산조사로 물의를 빚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뒤 “국내에서 840억, 해외에서 시가 100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유씨의 재산을 찾았다”면서 회수 가능성에 대해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저희가 보지 않았다. 지금 조사하고 확보하는 단계이지 따져보는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감 브리핑

### 황주홍 “4개 항만공사 임원 80%가 낙하산 인사”

여수광양·부산·인천·울산 등 총 4개 항만공사의 임원 14명 중 11명(78.6%)이 정피아(정자+파피아)와 관피아(관료+파피아) 등 이른바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임원 7명 중 6명이 정피아·관피아 인사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22일 배포한 항만공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 등 4개 항만공사의 임원 14명(전체 15석 중 공석 1석 제외) 중 11명이 정치권과 관료 출신이었다. 이 중 정치권 출신은 3명으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물이 2명,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출신이 1명이다.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2명은 모두 현 정부 여권 실세로 불리는 정치인들의 보좌관 출신으로 알려졌다.

항만공사 임원 중 관료 출신은 8명이다. 국토해양부(1명), 중앙해양안전심판원(2명), 인천지방해양항만청(1명), 부산지방항청(1명), 해양수산부(1명), 부산항건설회사(1명), 부산지방해양항만청(1명) 등 해양 관련 기관 출신이 대부분이다. 현재 공적인 울산항만공사 사장을 제외한 3개 항만공사 사장 전원이 관료 출신이다.

황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공기업 개혁을 강조해왔고, 특히 항만공사는 방만 경영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임에도 전문성 없는 여당 및 관료 출신 인사가 공기업에 낙하산으로 임명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김승남 “농협 잇단 전산사고 이유는 하청업체와의 유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농협에 대한 국감을 앞두고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협의 전산 및 보안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농협 스스로 개발능력을 확충하기보다는 수의계약방식으로 하청업체들과의 유착관계가 만연한 것이 문제”라며, “농협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협조직의 IT분야 용역 사업은 중앙회의 해당 부서 및 관계사에서 농협정보시스템에 100% 수의계약방식으로 사업을 맡아주고, 농협정보시스템은 중앙회의 해당부서 및 관계사에서 추천한 업체에 사업의 일부를 수의계약 형태로 하청을 주고 있다.

농협정보시스템은 지난 2009년부터 올 7월까지 수행한 총 384건의 용역 중에서 362건(94%)을 농협중앙회 및 관계사로부터 받았으며, 이 중 74%(2532억 3600만원)를 하청기업과 수의계약했다.

특히 농협정보시스템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용역의 36%(137건)가 농협중앙회의 IT부서에서 발주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업구조는 농협정보시스템이 중앙회 IT본부 및 농협은행 IT부서가 추천하는 특정업체와 계약할 수밖에 없는 형태”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화상 비대위원장이 22일 국회 대표실에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우윤근 원내대표, 문화상 비대위원장, 조성식 사무총장. /연합뉴스

## ‘구원투수’ 문화상 비대위원장 취임 한달... 일단 ‘합격점’

### 새정치, 세월호법 협상 등 내용 수습

### 전당대회 제과간 갈등 봉합 과제로

새정치민주연합 문화상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을 통한 당의 재건을 다짐했다.

일단 당내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문 위원장의 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전반적이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장외투쟁 철회 문제를 무난하게 마무리하며, 내용을 수습하고 조직을 재정비할 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제과 수장들을 비대위로 끌어들이는 논의의 장을 공개무대로 옮긴 것도 ‘뒷말’을 없애는데 주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취임 100일에 이뤄지는 기자회견을 취임 한 달을 명분으로 개최한 것도 리더십을 강

화, 당내 분란을 최소화 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감이 다음주면 마무리되고 지역위원장 선출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당이 전당대회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제과 간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문 위원장은 이날도 과감한 혁신과 공정한 지역위원장 선출, 철저한 전대 준비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미 원내대표 선거 등에서 ‘범진노 대 비노’의 대결구도가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전당대회에서 야당의 고질병인 제과 갈등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경선 구도와 경선 방법이 진노 진영에 유리하게 만들어질 경우, 비노 진영이 결집하면서 정면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극히 일부지만 중도파나 호남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분당설이나 신당창당설도 계속 흘러나

와 위기감을 부추기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 위원장은 다시 “기강학박”과 “원칙주의”를 내세워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문 위원장은 “(제과수장인) 비대위원들이 공정성을 흐리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 불공정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반영하듯, 새정치연합은 이날 자기 전당대회 경선 룰 등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공정한 지역위원장 선출이 당내 내용을 잠재울 수 있는 1차 관문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자기 총선 공전에 결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줄 세우기 등 조기과열 양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철저한 자료준비·겸손한 질의...비판·대안 제시 ‘모범’

### 국감 인물 새누리 이정현 의원

지난 7·30 재보선에서 강고했던 지역주의의 벽을 허물고 국회에 입성, 국내 정치사에 한 획을 그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순천·곡성,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국정감사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성강댐 물을 수력발전 용도 대신 생활 및 농업·공업용수 등 다목적으로 전환하고 섬진강 댐의 관리를 수자원공사가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 운상직 장관으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이 의원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순천·여수·광양·곡성 등의 지역에 1억5000만톤 규모의 생활·공업 용수를 확보하게 되며 섬진강의 풍부한 유량 확보가 가능, 생태계 복원과 함께 새로운 댐 건설에 드는 4000억원 가량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16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 국전력에 대한 국감에서 이 의원은 지역 대학 출신에 가산점(서류전형 3%)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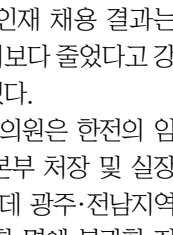


고도 지역 인재 채용 결과는 오히려 과거보다 좋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한전의 임원(7명)과 본부 처장 및 실장(35명)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출신이 단 한 명에 불과한 지역 편중 구조로 인한 현상이 기인한다며 향후 인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변화를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미래 비전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지원,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는 ‘월드 클래스(World Class) 300’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난 3년 동안 선발된 광주·전남지역 기업은 단 1곳에 불과한 것은 물론 전반적으로 뚜렷한 성과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산하위 관계자는 “철저한 자료 준비와 겸손한 질의 태도, 비판과 대안 제시 등이 의원이 이성적인 국감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 같은 모습은 그가 어떻게 지역 구도를 무너뜨렸는지 되새기게 한다”고 말했다.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부작용: 수술 초기 아간 빛반점, 노안라식 수술 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의필 제 140611-중-59153호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필 제081110-중-10719호

**Beautis**  
Clear skin & laser clinic

**맑은피부과·성형외과**

•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레이저 시술 전문클리닉  
• 피부과 전문의 진료

레이저센터 (최신 30여종) | 항노화치료 | 기미클리닉 | 성형외과 | 지방이식 흡입 | 모발이식 관리 | 에스테틱

**맑고 깨끗한 피부제안**  
For your best skin

- 최신레이저 30여종 보유

① 리프팅레이저: 볼세라, 써미지, 에너젯 복합치료  
② 아드름 레이저: 스무스필, 아이슬, 브이빔, 프락셀  
③ 피 오 려 이 저: 켈로맥스, 다이오우드제오  
④ 피 부 미 백: 루미나스원, 엑셀V, 켈로맥스, 루비레이저  
⑤ 주.름.흉.터: 프락셀듀얼, 울트라펄스임프코, 프락셀, 인트라셀, 프락셀 세너  
⑥ 모.공: 변치, 프락셀5종  
⑦ 비.민: 네오모도, 지방흡입

【상무점】 상무지구 미즈피어빌딩B/D 1F | Tel: 385-7575, 1177 | 에스테틱: 385-0009 | www.clear-skin.co.kr | www.s-thetic.co.kr  
【운임점】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3F | Tel: 528-1415 | 무료전화: 080-707-7575 | 에스테틱: 525-7555